

# 朝鮮時代 閨房文化와 針線小品에 관한 연구

이미석\* · 이선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우리문화를 대표할만한 문화상품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요즈음 조선시대 규방여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각종 침선소품의 종류와 쓰임새, 제작기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실제로 재현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현대인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전통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현대적 활용을 통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예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는 가내생산(家內生産)과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침선(針線), 방적(紡績), 잠직(蠶織)등의 일은 사대부의 가정으로부터 상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여성이면 습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여성들은 이러한 유교적, 도덕적 관념의 지배를 크게 받게 되어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관계로 여성들은 자연히 규방(閨房)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부덕(婦德)을 쌓으며 지혜와 인내로서 생활해나갔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많은 시간을 여성들은 침선을 통하여 부덕(婦德)을 닦는 교양으로서, 또는 가정생활과 수복(壽福), 부귀(富貴), 다남(多男) 등의 생활염원 등을 기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침선소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규방문화(閨房文化)는 자연히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침선도구의 종류로는 바늘(針), 실(絲), 자(尺), 가위(鋏), 인두, 화로, 인두판, 다리미, 골무, 바느질상자, 실고리, 실첩, 실상자, 실패, 바늘꽃이, 바늘집등이 있었다. 이러한 침선도구들은 침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것들이었으며 그 형태나 구조가 매우 과학적이고 능률적이어서 침선(針線)의 수고를 다소나마 덜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침선소품의 종류로는 골무, 바늘집, 바늘꽃이, 주머니, 보자기, 수저집, 향집, 버선본집, 가위집, 자집, 안경집, 매듭단추, 쌍밀이단추, 삼지, 열쇠패 등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침선소품류들은 실용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침선소품류에 나타난 색상은 오방색(五方色)을 근거로 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도 적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적색이 양기가 가장 왕성하여 액의 접근을 막으려 한 벽사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양으로는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고 싶어하는 현실위주의 길상사상이 문양으로 표현되어 주술적 의의를 한층 강화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침선소품의 재현과 응용에서는 재현작품 25점, 응용작품 22점을 제시하였다.

소재로는 무명, 삼베, 모시, 견 을 사용했으며, 홍화, 쪽, 괴화, 소목, 자초, 꼭두서니, 정향 등을 이용하여 염색 하였다. 침선기법으로는 흠질, 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 상침, 사뜨기, 곱술, 싹술, 쌍밀이단추, 풀칠하기 등을 사용했다.

현재 인사동의 전통소품 전문점들과 곳곳의 문화상품 판매점에서는 한국의 전통문양이나 소재를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개발, 전시 판매하고 있었으며, 외국 관광객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층에서의 큰 관심과 호응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국가의 이미지와 상품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상품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 등의 정서를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통문화와 생활용품의 접목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만이 아닌 전통의 재창조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